

경희인(in)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18년, 아직도 꿈꾸는 엔지니어

경희인(in) 실리콘밸리④ : 김한규 동문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 공룡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를 대학주보를 통해 소개한다. 네 번째 순서는 세계 3대 컴퓨터 기업인 'Dell'에 있는 김한규(전자·전파공학) 동문이다.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 기업인 삼성과 LG를 가진 우리나라이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특히 완성품 컴퓨터 부문에서 이들 기업은 맥을 못 춘다. 해외 컴퓨터 시장의 BIG3로 불리는 기업이 HP(휴렛팩커드), Lenovo(레노버), 그리고 Dell(델)이다. 컴퓨터 시장의 절대비율을 차지하는 이들 회사 중 델은 모니터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백만 미군 컴퓨터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델의 EMC(정보관리/저장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생산업체)에 김한규(전자·전파공학) 동문이 있다.

김 동문은 델 EMC에서 정보관리와 저장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시니어 엔지니어 직무를 맡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강대에서 석사를 거친 김 동문의 첫 직장은 두산 네트워크였다. “인터넷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여서 기업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것이 김 동문의 시작이었다.

컴퓨터가 많아지고 서버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나던 중, 미국에서 열린 네트워크 관련 컨퍼런스로의 출장은 생각지 못한 전환의 계기였다.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생전 처음 여권을 만들었다. 영어는 한 마디도 못 하고, 말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 동문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여러 경력을 거쳐 무선통신 기업이자 최근엔 스마트폰 부품으로 유명한 퀄컴의 한국지사에서 일하던 김 동문은 미국 퀄컴 본사와 네트워크 설비 기업인 시스코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다. 그가 미국행을 선택한 때가 2000년 4월이었다. 김 동문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스카우트를 받아 미국으로 이직한 건 제가 국내 최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곧 입학할 2019학번 신입생들이 태어났을 즈음, 김 동문은 이미 미국 무대에 있었다.

실리콘밸리 입성 18년차, 김 동문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다름 아닌 ‘말하기’라고 강조했다. 김 동문은 “이곳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어필한 후 설득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설득력을 강화하는 기술이 바로 말하기라는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한 모습이 된다”며 행동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학연과 지연 등은 배척해야 할 적폐라고 여기는 우리와 달리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서로의 실력을 보증하고 일자리를 주선해주기도 한다.

실리콘밸리 진출 이후도 중요하지만 진출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 김 동문은 학부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넓게 배우는 게 학부 생활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소홀히 배우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김 동문은 “어디든 학점을 기본적으로 보

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특출 난 수상 경력 혹은 뚜렷한 성과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학벌이나 학점을 뒤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동문은 “일을 시작할 때엔 일단 시작을 하는 것과 시작의 계기가 중요하다”며 “본인의 ‘시작’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부에 한계를 두지 말고 노력할 것을 조언했다. 실리콘밸리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명문대를 나온 사람에게 쉬운 건 맞지만 그 반대로 못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동문은 “미국에서 경희대라는 학교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출신, 학벌에 콤플렉스를 가지지 말고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동문은 향후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홀로그래프와 무인 자동차 기술 분야,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을 꼽았다. 이어 “추세가 어떻게 되는 모르겠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실리콘밸리의 대세”라며 “아무래도 실리콘밸리가 컴퓨터 공학을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곳이다 보니 화학 및 기계공학 분야가 특별하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1세대 한국인이었던 김 동문은 고비도 많았다. 가장 큰 고비는 미국 생활 10년차에 찾아왔다. 어느 정도 쌓인 경력을 바탕으로 나타내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김 동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주춤하면서 회사의 R&D 센터가 문을 닫았고 자연스럽게 퇴직 과정을 밟게 됐다”라고 말했다. 퇴직하면서 당연히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김 동문은 “면접 기회가 적기도 했지만 면접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한 것은 분명 내 잘못”이라며 “여러 번 이직에 실패하면서 게을러졌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회상했다. 한 달 여를 방황하다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것이 그의 큰 전환점이었다.

김 동문은 현재 50대 초반이다. 한국에서는 은퇴와 노후를 걱정할 나이지만 김 동문은 조금 다르다. “적어도 67세까지는 지금처럼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다”며 “주말에도 빠짐없이 업무 관련 트렌드를 공부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각광받는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8년 전 의도치 않은 이직이 큰 전환점이었다.” 김 동문은 당시의 일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은 발전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말한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프로그래밍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말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새로운 스타트업으로의 진출도 생각중이다. “또 다른 열정을 갖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직업수명이 짧은 IT직군에서 한국과 달리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김 동문은 문화적 차이라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선 이력서에 나이와 성별을 쓰는 것이 불법”이라며 “나이가 아닌 기술로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이 출중하다면 해고당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 동문이 공부를 이어나가는 이유이자 향후에도 경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김 동문은 “투입한 노력에 비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테다”라며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이 쌓이면 결국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도 많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응원자의 말을 보냈다.

(인터뷰어= 김도훈, 유재욱, 류성한 학생)

정리= 이후승 기자



“공에 물을 쥐 봐야 처음엔 흘러가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공은 썩을 틈을 틔우고 공나뭇물이 자라난다. 공부도 이와 같다.” 김 동문은 공부를 공나뭇물 키우기에 빗대 설명하며 마지막 응원의 말을 보냈다.

